

영 국

2003. 9.

김균태

([ktkim@kiep.go.kr](mailto:ktkim@kiep.go.kr))

## I. 일반개황

### □ 자연지리

- 국토면적: 242,910km<sup>2</sup>
- 인 구: 5,950만명(2001년 현재)
- 기 후: 온대해양성 기후
- 시 간 대: GMT와 같음

### □ 행 정

- 정식국명: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
- 수 도: London(인구 730만명)
- 주요도시: 버밍햄(인구 102만명), 글라스고우(인구 61만명)

### □ 정 치

- 정부형태: 내각책임제
- 국가원수: 엘리자베스 2세 여왕(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, 1952.2.6 즉위)
- 의회제도: 양원제
- 수 상: 토니 블레어 (Tony Blair)
- 주요정당: 노동당, 보수당 등

### □ 사회·문화

- 민 족: Anglo-Saxons, Celts
- 언 어: 영어(Wales지방 인구의 19%는 웨일즈어 사용)
- 종 교: 성공회(50%), 개신교(30%), 카톨릭(11%), 기타(9%)
- 공 휴 일: 6월 셋째 토요일(여왕생신기념일)
- 도 량 형: Metric System으로의 대체를 시도중이나, 아직 Yard, Pound System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.

□ 한국과의 관계

- 한·영 우호통상조약체결 : 1883.11.26
- 국교수립: 1949년 1월 18일
- 체결협정:
  - 사증면제협정(1969년 12월 18일)
  - 공업소유권 보호협정(1978년 2월 19일)
  - 이중과세 방지협정(1978년 5월 13일)
  - 투자증진.보호협정(1983년 개정)
  - 항공협정(1990년 개정)
  - 사회보장협정체결(2000년 8월 발효)

## II. 주요 경제지표

### 1. 최근 경제동향

	단위	1998	1999	2000	2001	2002
인구	백만명	59.1	59.2	59.4	59.5	59.6
GDP(명목)	십억 달러	1,425.9	1,460.5	1,438.9	1,431.4	1,566.8
1인당GDP(명목)	달러	24,132	24,661	24,244	24,069	26,294
경제성장률	%	2.9	2.4	3.1	2.1	1.9
실업률	%	6.2	6.0	5.5	5.1	5.2
소비자물가상승률	%	2.7	2.3	2.1	2.1	2.2
재정수지(GDP대비)	%	0.3	1.1	1.6	0.9	-1.2
수출	십억 달러	272.2	268.9	284.5	273.9	279.8
수입	십억 달러	308.4	315.9	334.6	332.4	349.5
경상수지	십억 달러	-8.0	-31.7	-28.9	-18.0	-13.1
환율(연평균)	파운드/달러	0.60	0.62	0.66	0.69	0.67

자료: Global Insight. *Online Analysis*. August 2003.

### 2. 향후 경제전망

항목	단위	2003	2004	2005
경제성장률	%	1.8	2.6	2.6
소비자물가상승률	%	2.9	2.6	2.3
실업률	%	5.3	5.3	5.3
경상수지	%, GDP대비	-1.0	-0.9	-1.0

자료: Global Insight. *Online Analysis*. August 2003.

### 3. 대외경제관계

#### 가. 품목별 수출입

(단위: 백만 유로)

교역품목(SITC 기준)	수출		
	2001	2002	2003(1-2월)
0. 식품 및 산동물	8,858	9,010	1,386
1. 음료 및 담배	6,554	6,692	885
2. 비식용원재료(연료제외)	3,908	4,187	685
3. 에너지	25,042	24,105	4,211
4.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	235	335	69
5. 화학물 및 관련제품	43,942	44,870	6,690
6. 재료별 제조제품	36,301	34,333	5,052
7. 기계 및 운수장비	141,247	134,651	18,325
8. 기타 제조제품	35,322	34,523	4,928
9. 기타	3,100	2,974	1,103
합계	304,506	295,681	43,347

자료: Eurostat. *External and Intra-European Union trade*. July 2003.

(단위: 백만 유로)

교역품목(SITC 기준)	수입		
	2001	2002	2003(1-2월)
0. 식품 및 산동물	23,951	24,461	3,579
1. 음료 및 담배	5,423	5,475	649
2. 비식용원재료(연료제외)	10,323	9,394	1,405
3. 에너지	16,265	15,121	2,712
4.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	881	929	161
5. 화학물 및 관련제품	37,216	38,874	5,925
6. 재료별 제조제품	49,785	46,747	6,952
7. 기계 및 운수장비	161,122	154,545	22,956
8. 기타 제조제품	56,558	58,347	8,223
9. 기타	10,276	11,227	3,143
합계	371,822	365,121	55,719

자료: Eurostat. *External and Intra-European Union trade*. July 2003.

나. 지역별 수출입

(단위: 백만 유로)

	2001	2002
< 수출 >		
EU	175,045	173,674
독일	36,873	34,302
프랑스	29,953	29,352
아일랜드	22,589	24,977
네덜란드	22,830	21,826
벨기에	14,888	15,814
미국	46,964	44,391
일본	5,971	5,761
스위스	6,562	4,858
< 수입 >		
EU	185,812	191,455
독일	45,226	48,462
프랑스	30,310	29,915
네덜란드	23,704	24,000
벨기에	17,894	18,504
이탈리아	16,083	17,053
미국	51,046	44,089
중국	15,530	16,811
일본	15,022	13,303

자료: Eurostat. *External and intra-European Union trade*. July 2003.

다. 영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)

	1996	1997	1998	1999	2000	2001
해외직접투자(ODI)	34,045	61,590	122,820	201,437	253,929	39,462
외국인투자(FDI)	24,434	33,229	74,324	87,973	116,552	53,799

자료: United Nations. *World Investment Report*. 2002.

□ 국별 純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유로)

국 가	1999	2000
<b>유럽</b>	44,140	131,554
EU 회원국	38,821	128,393
오스트리아	-18	192
벨기에/룩셈부르크	151	1,224
덴마크	111	-52
핀란드	217	-213
프랑스	2,171	5,925
독일	1,308	111,215
아일랜드	-	4,672
이탈리아	190	-3,440
네덜란드	6,781	-2,331
포르투갈	180	262
스페인	617	9,525
스웨덴	-	1,268
EFTA 회원국	3,251	725
노르웨이	226	-148
스위스	3,024	872
<b>북미주</b>	70,855	32,754
캐나다	849	2,891
미국	70,006	29,863
<b>아시아</b>	5,486	-971
홍콩	312	-3,302
일본	1,929	1,269
호주	715	2,923
합 계	124,508	167,822

자료: 日本貿易振興會, ズエトロ投資白書, 2002年版.



□ 국별 純외국인투자

(단위: 백만 유로)

국 가	1999	2000
<b>유럽</b>	39,398	54,008
EU 회원국	39,676	51,794
오스트리아	-13	175
벨기에/룩셈부르크	551	792
덴마크	398	477
핀란드	228	87
프랑스	3,217	31,766
독일	26,278	10,360
아일랜드	78	350
이탈리아	23	469
네덜란드	7,860	4,277
포르투갈	11	-6
스페인	119	-
스웨덴	924	627
EFTA 회원국	-660	1,401
노르웨이	-502	-392
스위스	-165	-1,779
<b>북미주</b>	16,472	15,907
캐나다	519	1,846
미국	15,953	14,061
<b>아시아</b>	-2,326	4,708
홍콩	17	927
일본	-2,646	2,825
호주	-	1,456
합 계	54,376	77,02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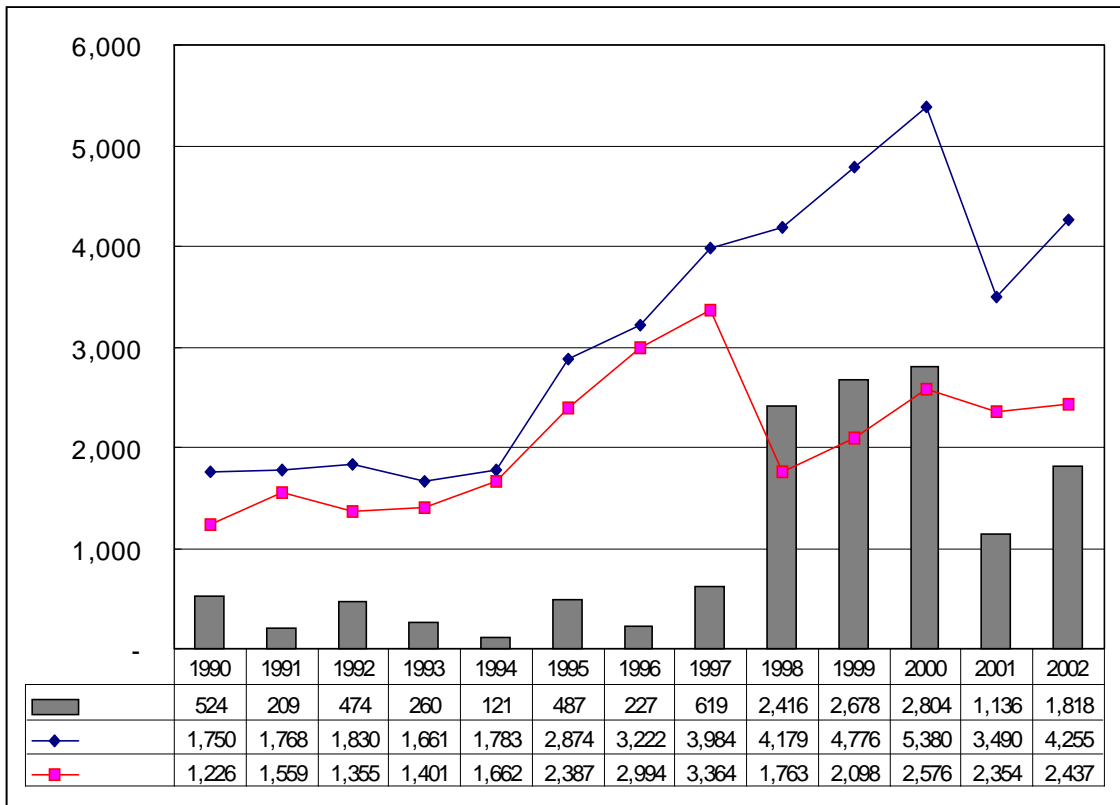
자료: 日本貿易振興會, ズエトロ投資白書, 2002年版.

#### 4. 한·영국 경제관계

##### 가. 교역

##### □ 연도별 수출입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KOTIS.

□ 품목별 수출 내역(HSK 2단위, 금액순 상위 10품목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품 목	2002		2003(1~7월)	
	금액	증가율 <sup>1)</sup>	금액	증가율 <sup>2)</sup>
전기기기와 그 부분품	1,094	7.2	679	6.9
원자로, 보일러와 기계류	1,415	26.6	628	-18.7
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	484	17.5	330	51.2
선박과 수상구조물	450	376.2	230	425.7
플라스틱 및 그 제품	81	39.9	51	18.6
고무와 그 제품	69	4.8	50	28.4
진주, 귀석, 반귀석, 귀금속	44	74.9	47	105.0
광학기기, 사진용기기, 측정기기	41	-20.8	40	71.9
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	90	-4.1	39	-9.1
인조장섬유	42	0	22	-12.7
총수출	4,255	21.9	2,350	10.1

주: 1) 전년대비 증가율, 2)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KOTIS.

□ 품목별 수입 내역(HSK 2단위, 금액순 상위 10품목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품 목	2002		2003(1~7월)	
	금액	증가율 <sup>1)</sup>	금액	증가율 <sup>2)</sup>
원자로, 보일러와 기계류	359	14.5	194	-15.5
음료, 알코올, 식초	244	22.1	158	24.1
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	250	-1.3	147	-4.5
광학기기, 사진용기기, 측정기기	209	20.4	118	6.6
의료용품	98	24.4	57	-1.5
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	75	356	50	35.1
플라스틱 및 그 제품	72	2.3	46	4.9
철강	58	35	37	20.1
진주, 귀석, 반귀석, 귀금속	238	53.3	36	-77.7
유기화학품	65	22.3	33	-5.4
총수입	2,437	3.6	1,268	-8.3

주: 1) 전년대비 증가율, 2)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KOTIS.

나. 투자

□ 한국의 對 영국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단위: 건, 백만 달러, 신고기준)

1999		2000		2001		2002		2003(1~6월)		총누계 (1968~2003.6)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5	153	15	56	8	323	11	72	2	61	139	2,186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,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, 2003. 8.

□ 영국의 對 韓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단위: 건, 백만 달러, 신고기준)

1999		2000		2001		2002		2003(1~6월)		총누계 (1962~2003.6)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54	479	44	84	51	432	36	115	28	431	547	2,392

자료: 산업자원부, 주요국의 대한투자, 2003. 7.

### III. 경제현안

#### 1. 영국의 경제현안

##### 가. 개요

□ 2003년 영국경제는 독일, 프랑스 등 유로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보였으며,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.3%로, 1/4분기(0.1%)보다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음.

- 유로지역 경제는 2003년 2/4분기에 전기대비 0% 성장에 그쳤으며, 독일(-0.1%), 프랑스(-0.3%), 이탈리아(-0.1%) 등 유로지역의 경제대국들은 모두 2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.
- 동기간에 영국경제는 미국(0.6%), 일본(0.6%)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미국, 일본의 경기회복 전망이 낙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영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#### <영국 및 기타지역의 경제성장률>

(단위: %)

	전기대비 GDP 증가율				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			
	2002		2003		2002		2003	
	Q3	Q4	Q1	Q2	Q3	Q4	Q1	Q2
<b>영국</b>	<b>0.9</b>	<b>0.5</b>	<b>0.1</b>	<b>0.3</b>	<b>2.3</b>	<b>2.3</b>	<b>2.1</b>	<b>1.8</b>
독일	0.1	0.0	-0.2	-0.1	0.4	0.5	0.1	-0.2
프랑스	0.3	-0.1	0.2	-0.3	1.3	1.4	1.1	-
유로권(12개국)	0.3	0.1	0.1	0.0	1.0	1.2	0.9	0.4
미국	1.0	0.3	0.4	0.6	3.3	2.9	2.0	2.3
일본	0.7	0.5	0.3	0.6	1.5	2.5	2.8	2.1

자료: Eurostat.

□ 이러한 영국경제 2/4분기 성장의 원인은 가계소비가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있음.

- 수출(-2.9%)이 큰 폭의 감소로 돌아서고 고정투자(-0.5%)도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가계소비가 전기대비 1.3%(전년동기대비 3.3% 증가)로 전분기의 0.2%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, 정부소비도 1.3%(전년동기대비 4.9%)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함으로써 영국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음.

<영국의 경제성장률 추이>

(전기대비, %)

	2002				2003	
	Q1	Q2	Q3	Q4	Q1	Q2
실질GDP	0.3 (1.4)	0.6 (1.8)	0.9 (2.3)	0.5 (2.3)	0.1 (2.1)	0.3 (1.8)
가계소비	0.5	1.1	0.8	1.0	0.2	<b>1.3</b>
정부소비	1.6	-1.1	0.3	0.9	2.5	<b>1.1</b>
고정투자	-1.0	2.3	-0.2	0.3	-1.1	-0.5
수출	0.5	3.4	-0.6	-3.9	2.2	-2.9
수입	1.8	1.3	0.1	0.4	0.7	0.5

주: ( )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자료: Global Insight. *Online Analysis*. August 2003.

- 또한 제조업 부문은 3~5월까지 1.4%(전년동월대비) 감소하였으나, 서비스 부문이 1/4분기와 2/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.4%(전년동기대비 2.6%) 증가함으로써 영국의 2/4분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.

□ 소비자물가(RPIX; Retail Price Index Excluding Mortgage Interest Payments)상승률은 4월 3.0%, 5월 2.9%이후 6월에는 2.8%로 점차 하락하였으나 영국은행의 정책목표치인 2.5%를 상회하였음.

- 이는 석유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지방세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지만 석유가격과 주택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향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3~5월간 실업률은 5.0%로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임.

- 동기간에 실업자수는 20,000명이 줄어들고 취업자수는 101,000명 증가하여 총취업자수는 2,791만명에 이르렀으며, 이는 1984년 이후 최고치임.

□ 파운드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6월 중반 \$1.673로 약 3개월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, 7월 21일 지난 3개월간 최저치인 \$1.578로 하락하였음.

- 유로화에 대한 파운드화의 환율은 6월에 1파운드당 1.378유로에서 7월초 1.452유로로 강세를 보인 후 다시 7월 21일에는 1.401유로로 하락하여 지난 6주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.

□ 영국의 무역수지적자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352억 파운드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고, 2003년 1/4분기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90억 파운드에 이르렀음.

- 그러나 서비스 및 투자소득 수지가 2003년 1/4분기 각각 28억 파운드와 114억 파운드에 달하여 24억 파운드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. 영국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3/4분기 이후 처음임.

#### 나.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

##### 1) 영국의 EMU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 발표

□ 영국정부는 2003년 6월 9일, 유럽경제통화연맹(EMU)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 본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유로화 가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.



- 영국의 현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출범 이후 EMU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로화에 가입하기로 한 바 있음.

- 그러나 당시 영국경제 여건이 유로화 가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시에는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차기총선(2001년) 후 2년내 다시 평가하기로 하였음.

□ 영국의 고든 브라운(Gordon Brown) 재무장관은 2003년 6월 9일 EMU에의 가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인 ‘다섯 가지 경제적 테스트(five economic tests)’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음.

- ‘five economic tests’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1997년 10월, 영국의 EMU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만든 5개항(① 수렴성, ② 신축성, ③ 외국인직접투자 ④ 금융산업 ⑤ 성장 및 고용)의 경제적 평가 기준으로써, 영국경제가 유로지역의 단일 환율 및 금리체계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지와 유로화 가입이 영국의 투자 및 금융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.

- 발표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1개는 충족, 2개는 미달, 2개는 조건부 충족인 것으로 나타나 현 단계에서는 EMU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음.

-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로화 가입이 영국 및 유럽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가입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경과를 점검하여 내년 3~4월 정부예산 발표시 재평가 및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.

<표> 5개 항목의 평가내용 및 결과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결과
1. 경기순환국면의 수렴 여부	영국경제가 유럽중앙은행(ECB)의 단일 금리정책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로국가와 경기순환국면 및 경제구조가 수렴되어 있는가	미달
2. 경제구조의 유연성	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 영국경제의 구조가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가	미달
3.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	EMU 가입으로 영국내 기업투자가 장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가	조건부 충족
4.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	유로화 가입이 영국의 금융산업, 특히 런던국제금융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	충족
5. 성장·안정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	유로화 가입이 궁극적으로 영국의 성장·안정 및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가	조건부 충족

- 따라서 정부는 영국경제의 경기순환국면이 유로지역과 수렴되고 경제구조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그 진전상황을 보아 내년 예산발표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.
-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‘지역공간전략(Regional Spatial Strategies)’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수요의 금리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부 모기지(mortgage)제도를 도입하기로 함.
  - 영국은 주택시장의 경제구조가 유로지역과 상당히 다르며 주택금융 규모가 매우 크고 변동금리부 주택금융이 대부분이므로 유로지역에 비해 주택시장의 금리민감도가 높음.
- 금년 11월부터 영국은행 물가안정지표의 대상지표를 RPIX(Retail Price Index Excluding Mortgage Interest Payments)에서 ECB가 사용중인

HICP(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)로 전환키로 함.

- 지역별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지역별 임금 차등화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지역별 물가통계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임금의 차등화를 실시키로 함.
- 매 6개월마다 노동, 상품, 자본시장 유연성의 진전상황을 발표키로 함.

## 2) 영란은행(BOE), 기준금리 3.5%로 인하

□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(Bank of England)은 2003년 7월 10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(Monetary Policy Committee)에서 기준금리를 3.75%에서 3.5%로 0.25%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1955년 이후 48년만에 최저 수준임.

- 영란은행은 2001년 이후 4%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2003년 2월 6일에 기준금리를 4.0%에서 3.75%로 0.25%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
- 영란은행은 최근의 파운드貨 강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진 반면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해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위축으로 제조업생산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점이 금리인하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음.

○ 파운드貨는 2003년 3월 이후 강세로 돌아서 7월 11일 현재 美달러貨에 대한 파운드貨 환율은 전년말에 비해 1.2% 상승함.

- 또한 머빈 킹(Mervyn King) 영란은행 총재는 “영국수출이 예상했던 수준에 못미쳤다”라고 강조함으로써 금리인하를 통한 파운드貨의 약세 유도과 수출가격 경쟁력 촉진이 이번 금리인하의 중요한 목적임을 밝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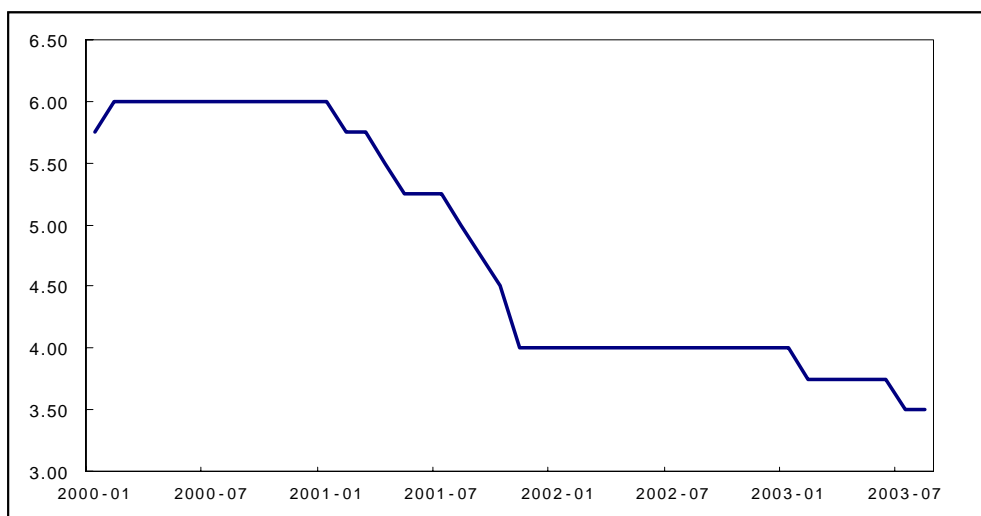
- 한편, 소비자물가(RPIX) 상승률은 5월중 2.9%로 기준치(2.5%)를 상회하였으나 이는 식료품 가격의 상승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개월 내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음.

□ 또한 영란은행은 2003년 8월 7일 기준금리를 3.5%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.

-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경기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고, 소비자 대출이 점차 증가하는 등 영국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.
-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영란은행이 금리동결을 예상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.
- 한편, Deutsche Bank는 금년 4/4분기 중 영란은행이 0.25%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, Goldman Sachs, Lehman Brothers 등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금년 말까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.

<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추이>

(연 %)



자료: Global Insight. *Online Analysis*. August 2003.

## 2. 한·영국 경제현안

### 가. 한·영국 교역 및 투자 동향

#### 1) 무역관계

□ 2002년 현재 영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대상국 중 7위(2.6%)이며, 수입대상국 중 12위(1.6%)에 해당됨.

- 또한 2002년 기준으로 EU 국가 중 최대 무역수지 흑자대상 국가이며, EU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의 수출대상 국가임.

- 한편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,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 전체 수출대상국 중 21위(0.8%), 수입대상국 중 16위(1.3%)에 해당됨.

□ 2003년 7월까지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.1% 증가한 23억 5천만 달러,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.3% 감소한 1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.

- 한편, 2002년도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전년대비 21.9% 증가하여 42억 5천만 달러, 수입도 전년대비 3.6% 증가한 2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한국은 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1998년 이후 흑자 폭이 대폭 확대되었음.

□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,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, 주요 수입품목은 귀금속, 기계, 의약품, 유기화학제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2003년 7월을 기준으로 對영국 수출은 컴퓨터, 자동차 및 가정용전자의

주력제품 수출호조가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으며, 최근 2년간 급성장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(휴대폰)의 경우 현지 시장 포화 및 경쟁 과열 등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음.

- 또한 2003년 7월 기준, 금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주류의 경우 전년에 이어 금년초에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자 및 기계, 수송기계 등의 자본재 수입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증가세 반전을 주도하고 있음.

## 2) 투자관계

- 2003년 1~6월간 한국은 영국에 총 2건, 약 6,123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여 1968년 이후 총 투자누계(신고기준)는 136건, 약 2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
- 주요 진출 업체

### <생산법인>

- 북잉글랜드 : 삼성전자, LG 전자 등 5개 업체
- 북아일랜드 : 대우전자부품, 휴맥스 등 7개 업체
- 웨일즈 : LG 전자 등 3개 업체

### <판매법인>

- 상사, 중공업, 해운, 전자(판매) 46개사 및 금융기관 25개사

- 영국은 EU 국가 중 네덜란드, 독일, 프랑스 다음으로 對韓 직접투자가 많은 국가로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.

- 영국은 1962년 이후 누계치(신고기준) 기준으로 2003년 6월 현재 총 547건, 24억 달러의 對韓 투자를 기록, EU 국가 중 네덜란드(104억달러), 독

일(53억달러), 프랑스(32억달러) 다음의 4위 투자국임.

- 對韓투자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<2001년 주요 투자기업>

- Reckitt Benckiser(1.3억달러) : 가정용품, (주)옥시 인수
- BAT(1억달러) : 담배, 담배제조공장 설립
-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(7.6백만달러) : 투자신탁

<2002년 주요 투자기업>

- BAT(2천2백만달러): 담배제조공장 설립 추가 투자
- H.W.Limited(7천1백만달러) : 조립금속 제품 제조 등
-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 Ltd(3천7백만달러) : 보험
- Burberry International(1천2백만달러) : 의복 도.소매업 등

<2003년 주요투자기업 및 투자 예상기업>

- Jardin Matheson : 중앙엘리베이터 인수
- Kingfisher : 한국내 B&Q 설립
- AMEC : 인천신공항 제2연륙교 사업

- 현재 영국기업들은 한국전력, 가스공사 등 에너지부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, 그밖에 항공산업 및 유통업 부문 진출을 모색 중임.

<주요 대한투자 관심기업>

- Shell Gas & Power : 한국가스공사와의 전략적 제휴
- BAe Systems : 한국우주항공과의 전략적 제휴(KMH사업)
- Kingfisher : B&Q 등 가정용품 유통분야 진출
- BNFL : 핵연료 리스 및 폐기물 저장사업

## 나. 주요 통상현안

-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따르고 있으며, 특히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및 금융서비스, 방송서비스, 외신기자의 활동, 주류 label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음.
  - 영국은 EU내에서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요구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.
  - 한국에서 자국의 BBC 방송의 방영시간 확대를 위해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 외국채널에 할당된 10%의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.
  - 한국은행, 재경부 등 한국정부를 취재하는 press club에 외신기자들의 가입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제기함.
  - 현재 한국의 국세청 등에서 주류에 대한 세원을 명확하기 위해 도매와 소매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label을 구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 영국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을 요구함.
- 영국 정부의 이라크와 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 안전조치를 위한 세관의 검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.
  - 영국의 세관 당국은 수출 제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, 이 과정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수출기업은 시간 소비는 물론 벌칙금까지 지불하는 상황임.
  - 2003년 3월 현재, 불리한 조치를 당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천개이며, 대개 반테러 정책과 관련 제정된 새로운 규정을 몰랐거나 사전 경고를 세관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회사들임.



-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도 영국으로 제품 수출시 컨설턴트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임.

□ 한·영국간 무역·투자 원활화를 위한 협의사항

- 운전면허 상호인정

-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1996년 4월부터 영국정부와 교섭하여 왔음.
- 2002년 9월 20일 한·영 양국은 우리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과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·영 양국간 경제·통상·투자 활동 증진과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됨.

- 양국간 항공편 증편 추진

- 2001년 6월 한·영 항공회담시 양국은 한국측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양국간 항공편을 현행 5회에서 8회로 증편할 것을 합의하여 2002년 1월 서울-런던간 항공편을 3편 증편, 총 8편을 운항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.
- 탑승률 증가로 인한 좌석난 해소를 위하여 2002년 12월 한·영 항공회담을 개최하였으나, 한·영 항공협정의 "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권" 규정관련 양국간 입장 차이로 항공편 증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- 사회보장협정(Social Security Convention) 발효

- 1995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체결에 합의하고 1999년 4월 양

국정부간 서명을 거쳐 2000년 8월 1일자로 발효됨.

- 동 협정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(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)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억원의 세금면제 효과가 기대됨.